



## [낙농경영] 자연방목, 젖소의 정서적 웰빙에 도움 된다는 연구결과 나와 - 네이처誌

### - 英 퀸즈대학 연구...실내사육 젖소가 자연방목 젖소 대비 보상심리 커



지난해 코로나19 봉쇄조치가 사람들의 정신건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젖소도 실내생활이 계속될 경우 정서적 웰빙이 저하될 수도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영국 퀸즈대학교 벨파스트 연구진은 자연방목과 정서적 웰빙의 상관관계 연구를 최초로 진행해 과학저널 네이처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연구진은 농식품 바이오 과학연구소와 협력해 홀스타인종 29마리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18일간 자연방목과 실내우사로 분리해 사육했다. 이어 사료가 담긴 버킷과 그렇지 않은 버킷을 두고 사료가 담긴 버킷에만 접근하도록 훈련을 시킨 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두 버킷 사이에 접근하는 것을 ‘긍정적인 감정’으로 설정했다.

연구결과 우사에서만 시간을 보낸 젖소들의 경우 사료 버킷에 접근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이를 자연방목 젖소들에 비해 우사 사육된 젖소들의 보상심리가 더 컸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시작으로 젖소의 동물복지 및 정서적 웰빙을 위한 자연방목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출처 : dairyreporter.com, 3월 22일 >

## [마케팅] 英, 어린이 농업 잡지 ‘The YoungStock’ 발간

### - 낙농업, 식품생산 등 농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공유



영국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농업 잡지가 발간되었다.

최근 윌트셔 지역의 농가와 업계는 7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농업에 대한 근거 없는 사실을 바로 잡고 식품생산, 환경 등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과 동시에 농업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32페이지 분량의 월간 간행물인 ‘The YoungStock’을 출간했다.

이에, 지난 3월 초 발간된 초판에서는 영국 콘월지역의 낙농업부터 미국의 가축 현황, 알파카, 농업장비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조류독감, 브렉시트, 농업로봇 등 다소 무거운 주제와 당근 재배 및 요리법 등 계절에 어울리는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독자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달 사전 신청한 독자들을 대상으로 씨앗 한 봉지를 제공해 발아부터 수확을 체험해보는 기회를 제공하고 ‘봉쇄기간 시골 생활’을 주제로 글쓰기 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으며 매달 어린이 인터뷰를 진행하고 독자들로부터 편지도 받아 수록할 계획이다. < 출처 : thecattlesite.com, 3월 22일 >

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